

미국 빅토리안 웨딩드레스의 디자인과 제작기법 연구

이 상 례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Victorian Wedding Dress Design and Making Techniques of America

Sang-Rye Le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ng University

(2007. 10. 1 투고)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select and analyze unpublished wedding dresses in the 19th century, to investigate the design characteristics and making techniques of Victorian wedding dresses, an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edding dress style and the fashion style in those days and the influence of the wedding dress style on contemporary's styles.

The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9 wedding dresses owned by the Historical Costume and Textile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in USA. The dresses were made during the mid and late Victorian Age.

As for silhouette, the bustle style was popular in the 1870s and 1880s, and the hourglass style in the 1890s, and different from contemporary dresses there were no big differences in structural pattern and details between ordinary dresses and wedding dresses. In addition, colored wedding dresses were used until the mid and late Victorian Age, but since the wedding ceremony of Queen Victoria in 1840, white wedding dress was widely accepted and settled as the tradition of today's wedding dresses.

While the Western dress style had been basically a one piece style, there appeared simple two piece designs in which the upper garment was separated from the lower one, from the mid Victorian Age. This is considered the reflection of those days' pragmatic social trend in dress style.

It seems around 1875 when asymmetric design was first introduced in the Western dress style, which had been mostly symmetric. The asymmetric style that pursued atypical beauty, though not common during the late Victorian Age, shows a change in the typical Western dress style.

With regard to dress making techniques, sewing machines were distributed widely during the early Victorian Age but they were not used in all parts of dress. Most of details and trimming works were done manually and some parts were attached and detached by hand sewing. In addition, not like today, there were no generalized rules of making such as the form of closings and composition.

Key words: victorian wedding dress(빅토리안 웨딩드레스), bustle style(버슬 스타일), hourglass style(아우어글래스 스타일), two-piece style(투피스 스타일), asymmetric design(비대칭 구조)

I. 서론

과거의 복식은 그 시대의 생활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며 현대 패션 디자인 발상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타 예술과는 달리 패션에 있어서 과거의 복식은 유물로서의 존재 가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패션 트렌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경향을 주도하는 크리에이티브 모티브로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식연구는 주로 문헌이나 회화, 조각, 패션드로잉, 사진, 실물사료 등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회화나 조각, 패션드로잉 등의 자료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변형되거나 비교적 과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반하여 사진자료와 실물사료는 실생활과 가장 밀착된 현실성을 보여준다. 특히 실물사료는 사진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소재와 내부구성 등의 제작 기법까지를 연구할 수 있는 복식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이도 중요한 자료이다.

그 중 빅토리아an 복식은 현재까지 비교적 유물사료가 많이 남아있고 국외에서는 전시나 연구가 활발하며 관심도 또한 높은 편으로, 빅토리아an 패션 혹은 빅토리아an 스타일이라 일컬으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재임기간인 1837년부터 1901년까지 유행되었던 여성스럽고 장식성이 많은 디자인 스타일의 복식이다. 이 복식 스타일은 복식사적으로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현대 디자인의 모티브로 활용 빈도가 높은 스타일이다. 실제적으로 21세기 초반 패션 트렌드 중에서는 1990년대의 미니멀리즘 시대의 반동으로 장식성이 강한 빅토리아an 패션 경향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하지만 서양에 비하여 20세기 이전의 서양복식 사료가 빈약한 국내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시기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발표된 19세기 웨딩드레스 실물을 직접 발췌하고 분석하여 미국 빅토리아an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적 특성과 제작기법을 연구하고 웨딩드레스 스타일과 그 시대 유행 스타일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려 한다.

실물사료는 미국 커네티컷 주립대학 커스텀 컬렉션(The Historical Costume and Textile Collection)

소장 웨딩드레스로서 비교적 중, 후기 빅토리아an 기에 해당되는 드레스들이다. 이 대학 소장 자료들은 정리된 것들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드레스들이 섞여있어 데이터 파일을 분류하고 연구 가치가 있는 실물사료들을 발췌해 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연구 사료로 선정한 9벌(1870년-1895년)의 드레스는 개인 기증물로서 6벌은 기증 시 기증자가 착용자와 제작, 착용년도를 명시하였고 2벌은 기증자와 착용자는 명시되어 있으나 제작년도가 불분명하였다. 1벌은 기증자와 소유자, 제작년도가 모두 불분명하였다. 제작년도가 불분명하거나 제작년도가 명시된 경우에도 년도의 오류가 의심되는 드레스는 당시 유행 스타일과 다른 사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제작년도를 추정하여 오차범위를 줄이려고 시도하였다.

9벌의 드레스는 비교적 보관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부분적으로 오염되거나 100여년의 세월이 지나며 옷감이 삭아서 파손되어 가는 중인 것도 있다.

소장품은 미국역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뉴잉글랜드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빅토리아an 드레스 연구와 복식문화 규명이라는 복식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자료로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20세기 서양복식연구에 있어 외형적인 연구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학계의 실증자료 분석의 데이터를 보완 강화시키고, 미국 빅토리아an 드레스의 제작 기법을 밝힐 수 있는 의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II. 미국 빅토리아an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유행스타일

빅토리아an 시대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재임기간인 1837년부터 1901년까지로 영국의 전성시대였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이미 독립한 시기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영어권 역에서는 19세기 대부분을 빅토리아an 시대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학, 음악, 예술 전반에 영국여왕의 분위기가 고취되어 있었다.¹⁾ 빅토리아an 기의 시대 구분은 학문분야와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변화

를 중심으로 1837년부터 1869년까지를 초기 빅토리아 기, 1870년부터 1889년까지를 중기 빅토리아 기, 1890년부터 1901년까지를 후기 빅토리아 기로 시기 구분한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산업부분에 있어 어떤 직물산업과 패션산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의복재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영국정부는 섬유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직기나 직기 관련 물품의 발명가나 기술자 등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엄격한 법률로 금지 시켰다. 18세기 말 사무엘 슬레이터(Samuel Slater)가 영국을 떠나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직물 공장을 세워 미국 최초로 직물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²⁾ 독립 초창기의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영국의 문화를 이식 내지는 답습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고 미국문화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830년대 이후로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지역이 그 중심이 되었다.³⁾

1861년에서 1865년까지 약 4년 동안의 남북전쟁을 통하여 미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여 도시중심의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 후 중기 빅토리아 기에 미국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생활이 확대되어 일상생활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복식에서도 점차 구분이 뚜렷해져 일상복, 외출복, 사교복, 운동복 등 착용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복식이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고 각각 그 용도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⁴⁾ 이렇게 산업이 확대되고 경제력이 증가되면서 미국의 복식 산업은 전성시대를 열게 되었다.

미국 빅토리아 말기의 복식에 있어 가장 특기할 만한 상황은 의복의 대량생산에 의한 기성복의 등장이다. 미국에서 의복의 대량생산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는 1850년 아이작 멜리트 싱거(Isaac Merritt Singer)에 의한 기존 재봉기계의 기능 개선과 발전, 그리고 패턴의 보급을 들 수 있다. '1851년 특허를 얻은 싱거는 마케팅에 주력하여 재봉틀은 급속히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으로 보급 되었으며 1858년 좀 더 가벼운 무게의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가정용 재봉틀을 내놓음에 따라'⁵⁾ 재봉틀의 사용은 일반적이 되었다.

재봉틀의 보급과 함께 '1863년 버트릭 패턴사(Butteric Pattern Company)는 실물크기의 종이패턴 판매를 시작하여 양재업자들과 가정 봉제자 들에게 더 잘 맞는 의복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⁶⁾

1880년대에 이르러 단품 스커트와 블라우스가 출현하자 여성용 기성복을 생산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 졌으며 단품 기성복의 가격은 맞춤 드레스 가격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하였다.⁷⁾ 생활의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성복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미국 빅토리아 말기의 복식은 이전에 비해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미국 빅토리아 기의 유행스타일을 보면, 초기 빅토리아 기에는 당시의 유럽과 동일한 로맨틱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증기선과 철도의 발달로 최첨단 유행의 직물이나 패턴 등이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당시의 로맨틱 스타일은 이전에 비해 점차 스커트의 폭이 넓어져 크리놀린 스타일이 주류를 이룬다.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후프의 재료는 주로 등나무 줄기(cane)나 고래의 수염(whalebone)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시기 미국인에 의해 페티코트에 스프링 스틸이 사용되었다. 또한 두꺼운 머슬린 테입으로 대체되기도 하여 패션분야에서 케이지 아메리칸느(Cage Americaine)는 후프를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⁸⁾ 부풀려진 스커트는 극도로 과장되고 인체의 형을 왜곡시킨 벨 형태(bell shape)를 이루었다.

초기 빅토리아 시기의 후반부인 1861년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알버트 공이 서거함에 따라 여왕은 오랫동안 검은 상복을 입고 생활하였다. 이 상황은 빅토리아 후기에 미국에서 검은색 드레스가 유행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1860년대에 절정에 달했던 크리놀린스타일은 후반부터 서서히 변화되면서 중기 빅토리아 시기의 디자인 특성인 좀 더 간편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당시의 잡지 하퍼스 바자(Harper's Bazar)⁹⁾는 중, 후기 빅토리아 시대 유행 패션을 버슬과 퍼프(Bustles and Puffs: 1867-1874년), 자연스러운 형과 큐레스 바디(Natural Form and Cuirass Body: 1875-1882), 버슬의 재현(Return of the Bustle: 1883-1890), 아우어글

래스 형태(Hourglass Figure: 1891-1898)의 스타일로 복식의 특징을 분류하였고 이는 크게 8년 단위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¹⁰⁾ 중기 빅토리안 기의 초반부에는 '당시 여성들의 스타일은 바닥의 먼지를 쓸며 다니는 귀찮고 긴 트레인이 유행이었으나 교외활동이 점점 증가되며 산책의상(walking costume)이 선보였다. 이 의상은 일반적인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 발목길이의 페티코트나 속치마가 드러나게 스커트는 감아 올려 졌으며 위로 올려진 스커트는 18세기 후반에 보여 졌던 원추형 실루엣을 이루고 둥그런 퍼프의 형태 였다.¹¹⁾ 이 유행은 드레이퍼리와 장식적인 트리밍의 유행 속에 묻혔으나 움직임의 자유를 추구하던 경향은 새로운 버슬스타일의 유행을 가져왔다. 유행하는 스타일이 하루에 완전히 소멸되고 또 다른 스타일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1875년 경 이상형은 가능한 평평하고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의복의 다양성을 주기 위하여 비대칭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비대칭 디자인은 트리밍과 드레이핑 양쪽에 새로운 접근 방법들의 다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스커트 뒤 쪽에 정교한 포켓을 부착하였다. 겉옷은 긴 길이가 유행하였으며 시베리아와 동유럽 복식의 형태가 적용된 모피와 chenille fringe(혹은 찬틀리 레이스(chantilly lace)라고도 한다.)와 장식끈등이 사용되어 무거워졌다. 또한 견고하게 본을 넣은 긴 상의인 큐레이스(큐레이스 바스크: cuirasses basque) 상의와 트리밍으로 장식된 무거운 트레인이 달린 호리호리한 프린세스 라인의 가운데 유행하였다.'¹²⁾

1880년대에 버슬 스타일의 과장과 왜곡은 절정에 달하였는데 하퍼스 바자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앞쪽은 거의 평평한 수직을 이루며 뒤는 엉덩이의 2배 이상 돌출되어 수직에 가까운 선으로 떨어졌다. 80년대 초기의 스커트에는 길고 짧은 트레인이 함께 보여 지나 후기에는 트레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1890년대 이후의 후기 빅토리안 기에는 버슬스타일에서 뒤쪽의 강조는 거의 사라진다. 퍼프슬리브와 레그 어브 머튼 슬리브 등의 커다랗고 부풀은 소매와 드레이프 등을 이용하여 극도로 부풀게 한 피죤

장식(pigeon effect)의 상의, 고어드를 이용한 플레어 스커트 등으로 허리는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인체를 S커브로 나타낸 아우어 글래스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단순하며 남성같이 보이기까지 한 테일러드슈트가 등장한다.

이 새로운 유행은 당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였던 찰스 다나 깁슨(Charles Dana Gibson)이 창조한 그림 속의 여성들의 스타일로서, 단순한 하이넥 칼라와 퍼프소매의 블라우스에 긴 스커트를 입은 차림이었다. 이 깁슨걸 룩(Gibson Girl Look)은 미국식 패션의 전형이 된 단순하고 기능적인 드레스의 효시가 되었다.¹³⁾

Ⅲ. 미국 빅토리안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분석

1. 웨딩드레스의 실루엣과 구성양식

본 연구의 사료인 9벌의 웨딩드레스는 1870년, 1872년, 1880년, 1881년, 1882년의 중기 빅토리안 기의 복식 6벌과 1891년, 1892년, 1896년의 후기 빅토리안 기 복식 3점이다.

웨딩드레스는 제작년도와 착용자 등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많이 명시되어 다른 복식사료 보다 연구의 활용이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기증자와 소유자, 제작년도 등이 불분명한 (C)드레스의 경우 실루엣과 디테일 등으로 연도를 추정하고 다른 복식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1880년경의 웨딩드레스로 결론을 내었다. 기본적 실루엣은 버슬실루엣으로 상의는 꼭 맞으며 안은 본(bone) 처리되었으며 서양복식에서는 드물게 비대칭의 디자인이다. 자료를 검색하던 중 (C)드레스에 사용된 레이스를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소장 드레스(Circ. 606-1962: 제작 1878-1880년으로 추정, 영국 또는 프랑스 제작)¹⁴⁾에서 발견할 수 있어 추정 년도인 1880년경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드레스는 (F)드레스로 기증자가 할머니의 결혼일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855년경이라고 말해 년도 추정에 혼란이 되었다. 그러나 몸

에 꼭 끼는 바디스와 소매, 밴드 칼라, 거의 직선에 가까운 스커트의 앞선 그리고 뒤쪽 트레인인 길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1882에서 1885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1881년 (E)드레스는 엉덩이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세워지는 버슬 실루엣과 스커트 디자인의 비대칭 구조, 투피스 양식 스타일이다. 기증자가 결혼일을 1881년 10월11일 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문헌 자료에 나타난 디자인과 실루엣 스타일보다 몇 년 앞선 형태의 양식 스타일이다. 문헌 자료에 근거한 분석에 의한다면 제작년도가 1884년 혹은 1885년 경으로 추론 된다.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을 보면 1870년(A)드레스는 앞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A라인을 이루며 뒤쪽은 약간 처진 듯이 엉덩이 부위에 주름을 잡아 볼록하게 강조한 버슬스타일이다. 뒤쪽은 트레인으로 장식하였다. 1872년(B)드레스는 (A)보다 엉덩이 위쪽을 강조하며 중 모양을 이루었다.

1880년(C)드레스는 (B)에 비하여 조금은 자연스러워진 버슬스타일이다. 1880년(D)드레스는 옆에서 본 스커트의 앞면은 거의 직선을 이루며 뒤쪽은 주름을 잡아 태슬 프린지로 장식한 버슬 스타일로 3단의 러플이 달린 트레인이 장식되어 있다. 1881년(E)드레스는 이번 사료 중에서 뒤쪽이 가장 직각에 가깝게 강조된 버슬스커트이다. 1882년(F)드레스에서는 엉덩이 부위의 과장은 훨씬 자연스러워지며 162cm의 긴 길이의 트레인으로 장식되었다.

1891년(G)드레스와 1892년(H)드레스에서는 갑자기 버슬이 사라지며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변화하여 허리를 강조한 아우어 글래스 실루엣으로 변화하였다. 1896년(I) 드레스는 70년, 80년대의 버슬과 같이 엉덩이 부위를 직각으로 왜곡하지는 않았지만 트레인으로 뒤쪽 라인을 강조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실루엣을 만든다. 꼭 맞는 상의는 앞부분을 드레이프로 장식하여 피죤 효과(pigeon effect)를 만들어 옆에서 보면 S커브 실루엣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웨딩드레스에 나타난 실루엣은 1870년대 1880년대의 버슬실루엣과 1890년대의 아우어 글래스 실루엣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1890년대 중반 S커브

가 보여져 당시 일반 복식에서의 유행이 웨딩드레스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9별 웨딩드레스의 구성양식은 원피스 1별과 투피스 8별이다. 동양복식과 서양복식의 구조적인 차이를 논할 때 평면형과 입체형, 원피스와 투피스 구성, 대칭과 비대칭의 양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번 사료에서 보여 지는 구성은 8별이 상하의가 분리된 구성이다.

1066년부터 1930년까지의 영국 복식의 구성을 다룬 책인 <The Evolution of Fashion>¹⁵⁾을 보면 빅토리아 기 이전까지의 복식에서 투피스의 형태는 단지 1620년과 1635년의 복식에서 볼 수 있다. 빅토리아 기에는 제시된 10별의 의상 중에서 중기부터 상의와 스커트가 분리된 구성이 보여지며 투피스 형태는 모두 6별이다.

빅토리아기의 미국 복식 문화를 보여주는 잡지 하퍼스 바자¹⁶⁾를 보면 <The Evolution of Fashion>에서와 같이 패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구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1860년대에 상하 분리형이 보여진다.

문헌 자료와 이번 사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서양복식에 있어 상, 하의가 분리된 간편한 투피스 형태의 디자인이 일반화한 시기를 빅토리아 중기부터로 추론될 수 있다. 이는 2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다양해진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성 증가에 따른 필요와 이 시기의 실용주의적인 사회경향이 복식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1880년(D)의 드레스 상의는 큐레스 바디형(Cuirass body)이다. 큐레스는 원래 상체보호를 위한 갑옷의 일부를 뜻하는 용어로서 라인(line)과 본(bone)이 들어가서 상체에 부드럽게 잘 맞는 상의를 뜻한다. 일반복식에서는 1875년에서 1882년 사이에 유행한 것을 볼 수 있다. 큐레스는 길이가 긴 것이 특징으로 (D)드레스는 앞 중심에서의 길이가 53.5cm이다. (D)(E)(F)드레스는 상의의 형태가 거의 유사하며 큐레스 바디스에서 상의의 길이만 조금 짧아졌다.

상의 길이를 보면 1872년(B)과 1880년(D) 브라운 웨딩드레스는 앞길이가 52cm, 53.5cm로 비교적 길이가 길다. 1891년(G)의 드레스는 원피스처럼 보이지

만 투피스로 블라우스 위로 스커트를 입고 뒤 허리에서 후크로 고정하고 있다. 1892년(H)와 1895년(I) 드레스도 전체 비례를 보면 상의의 길이가 43cm, 44cm로 극도로 짧아지고 있어 중기 빅토리안 기에 비교적 길었던 상의의 길이는 후기에 짧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서양복식 구성의 또 다른 특징은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대칭구조를 이룬다는 것인데 (C)와 (D), (E)드레스의 스커트는 비대칭구조의 디자인을 보여준다. 드레이프와 리본으로 장식된 1880년 C드레스(사진 4-C)와 커트벨벳과 비즈로 장식된 1881년 (E)드레스는 비대칭 디자인으로 인하여 버슬의 위치로 스커트의 중심을 파악해야 할 정도로 착장방법에 혼란스러웠다. (D)드레스는 오른 아래쪽에 깊은 삼각형의 형태의 주름이 잡힌 주머니를 달았다. 강조된 드레이프와 주름 잡힌 주머니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이러한 비대칭 디자인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일상복에 나타난 디자인 스타일의 특징과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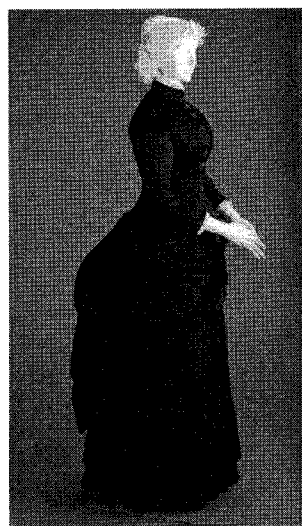
울론 벵갈라인(woolen bengaline)소재의 브라운 컬러 1872년 (B)드레스는 실용적인 소재와 비교적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복 중 가장 좋은 옷을 웨딩드레스로 활용 하였거나 결혼식 후 웨딩드레스가 일상복으로도 입혀지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당시의 패션너블한 신부들이 칼라풀한 데이 드레스나 이브닝 드레스 혹은 나들이용 복장으로도 입어진 여행용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다.”¹⁷⁾는 선행연구가 있어 이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 <사진 1>은 1874년-76년경으로 추정되는 빅토리안 시대의 웨딩 사진이다. 흑백사진으로 정확한 컬러는 알 수 없지만 흰색이 아닌 일상복 위에 흰색의 베일만을 착용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

2. 웨딩드레스의 색상

20세기 이전의 자료들에서는 일반 복식에서의 유행 색과 문화에 따른 색의 상징성이 웨딩드레스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악령을 쫓는다는 의미에서 붉은색의 웨딩드레스가, 중세에는 각자의 세력과시를 위해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다양한 색상이 호화롭게 이용되었으며 특히 붉은색이



<사진 1> 1874년-76년경 웨딩드레스¹⁸⁾



<사진 2> 1882년 웨딩드레스¹⁹⁾

널리 사용되었다. 르네상스 초기에는 중세의 영향을 받아 붉은색 등 유채색 계통이 유행하였으며 16세기 말에는 검정색이 지배적이든 스페인 모드의 영향으로 검정색 계통의 웨딩드레스가 사용되었으며 당시 신분과 부를 상징하던 흰색의 웨딩드레스는 일부귀족들만 입기 시작하였다.”²⁰⁾

본 연구의 사료로 쓰여진 웨딩드레스 색상은 화이트계열 컬러와 브라운, 블루, 민트 그린 등의 다양한 색상이다. 화이트의 경우 보존 상태에 따라 색이 바

라거나 변색된 것도 있겠지만 아이보리(ivy), 오프 화이트(off-white), 크림미(creamy), 샌드(sand) 등의 여러 가지의 톤을 보여 준다. 미국 빅토리안 기의 다른 사료 <사진 2>를 보면 1882년의 웨딩드레스로 색상은 자주색이다. 실루엣은 1880년 (E)드레스와 유사하며 1882년 (F)드레스와 같은 찬틀리 레이스(chantilly lace)로 장식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맥코드 박물관 소장품에서 같은 시대의 플럼 컬러의 웨딩드레스(1878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를 볼 수 있다.

당시 “1877년 1월 30일판 캐나다 몬트리올 신문 ‘이브닝 스타(The Evening Star)’를 보면 제이 캐롤 앤 사 (J. Carroll and Co.)는 ‘새로운 드레스 상품’이라는 제목 아래 10종류의 원단 모두 플럼 컬러가 이용 가능 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1878년 8월 31일 ‘몬트리올 데일리 워트니스’의 에스 칼스리(S. Carsley)의 광고를 보면 최고 품질의 여러 색조의 플럼 컬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다.²¹⁾

이렇듯 20세기 이전에는 흰색만이 신부의 컬러가 아니었으며 특히 1870년대와 1880년대는 플럼 컬러가 패션의 정점으로 주문된 것을 볼 수 있어 웨딩드레스 유행색이 일반복식의 유행색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현대의 보편적인 화이트 웨딩드레스는 1840년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식 후 많은 귀족과 왕족의 결혼식에서 흰색 웨딩드레스를 널리 사용하였고 그 후 서민층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²²⁾ 이후에 정착된 것을 감안할 때 미국 빅토리안 웨딩드레스의 컬러는 일반복식의 유행색이 반영된 초기와 중기를 거쳐 20세기의 화이트 컬러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과정의 색상 변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연구에서 재미있는 발견은 안감의 배색이다. 걸감과 안감의 배색은 디자인 상 달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색상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데 1880년 (C) 아이보리 컬러 드레스는 토스티드 브라운 컬러를 안감으로 사용하였다. 1881년(E) 블루 컬러 드레스는 상의는 라이트 브라운, 스커트는 그린컬러를 매치하였다. 1895년(I) 드레스는 브라운 컬러를 스커트 안감으로 매치하여 스커트의 톤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를 일반적인 현대 디자인 개념의 색상매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의도적인디자인상의 매치로 보거나 특별한 의미를 찾기 힘들다. 다른 드레스에서도 걸감과 안감의 컬러와 톤이 완전히 매치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시의 안감의 배색은 디자인적 색상의 배려보다는 적당한 소재의 맞춤에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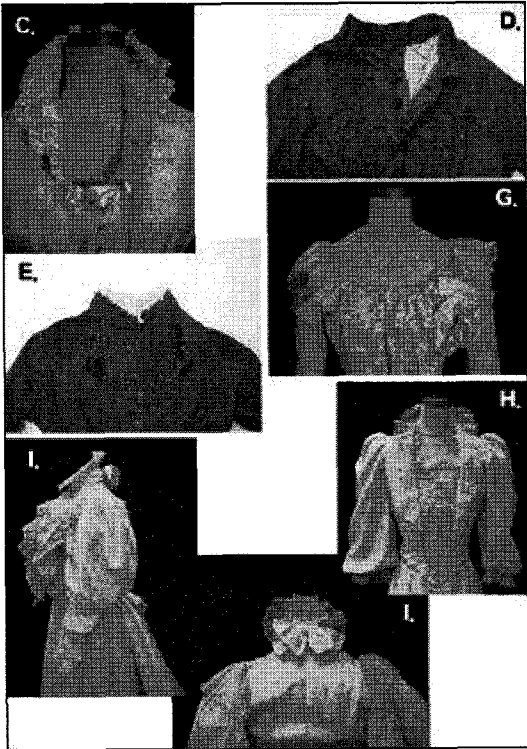
3. 웨딩드레스의 소재

이 시기에 일반복식에 주로 사용된 소재로는 여름에는 디미티(dimity), 로운(lawn), 챔브레이(chambray), 친츠(chintz), 깡검(gingham), 피퀘(pique), 넌킨 코튼(nankeen cotton), 아이러쉬 포플린(Irish poplin) 등이고 겨울에는 캐시미어(cashmere), 멀리노(merino), 플랜넬(flannel), 푸러드(foulard), 챌리스(challis), 그리나디네(grenadine), 브로드클로드(broadcloth), 타페타(taffeta), 브로케이드(brocade), 벨벳(velvet), 모아레(moire), 크레이프(crepe), 그로스그레인(grosgrain), 새틴(satin) 등 이었다. 가장 선호된 친은 스커트 버팀살대 전체를 감싸는 두터운 타페타였는데 그 이유는 움직임 때 마다 발생하는 감탄할 만한 미묘한 소리 때문이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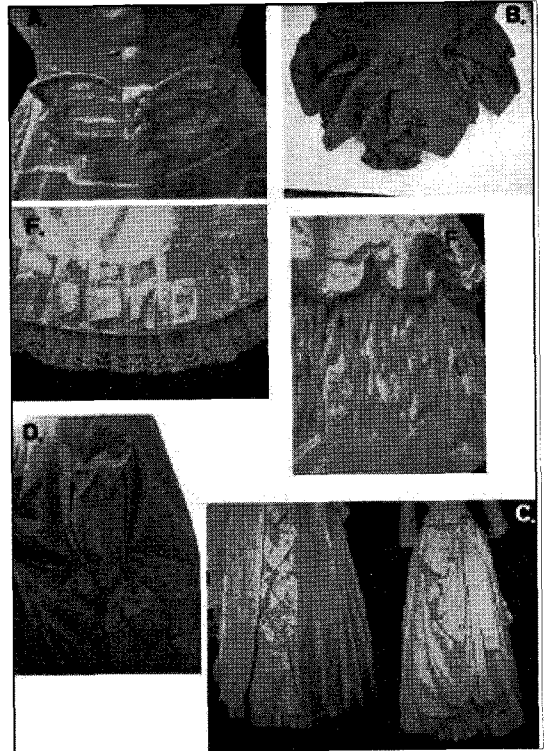
웨딩드레스의 소재를 보면 1870년대와 1880년대에는 (E)드레스를 제외하고 상의와 스커트를 동일한 원단으로 매치하였다. (E)드레스는 타페타와 컷 벨벳(cut velvet)을 함께 매치하였으며 1890년대의 후기 빅토리안 기 드레스는 두 세가지 소재를 함께 매치하여 좀 더 다양한 소재 사용을 보여주었다. 1895년 (I)드레스는 실크스커트와 자카드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그 위에 실거즈로 풍성한 드레이프를 잡아 장식적 효과를 높였다.

가장 많이 쓰여진 소재는 일반복식에서와 같이 타페타와 새틴 등 이었으며 트윌(twill), 다마제(damasse: jacquard silk), 컷 벨벳(cut velvet), 실크 거즈(silk gauze) 등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1872년 (B)드레스의 울론 벵갈라인(woolen bengaline)은 웨딩드레스의 소재로는 특이한 경우로 원단의 무게감과 단순한 디자인 등으로 다소 딱딱해



〈사진 3〉 칼라와 트임, 여밈형식



〈사진 4〉 디테일과 트리밍

보인다. 3-1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시에는 일상복 중 가장 좋은 옷을 웨딩드레스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드레스도 일상복을 웨딩드레스로 입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 해준다.

안감으로는 코튼, 코튼 머슬린, 부쳐스 린넨 (butchers linen), 린넨, 트윌, 캠브릭(cambric)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린넨은 이 시기에는 이미 스타일리쉬한 옷감으로 쓰여 지지 않았으며²⁴⁾ 스커트 밑단에 덧 테어 바닥으로부터 스커트를 보호하는 용도로 쓰였다. 부쳐스 린넨은 린넨에 풀을 먹여 마치 코팅한 것과 같이 만든 것으로(polished linen이라고도 함) 내구성이 좋다. 푸줏간에서 앞치마로 많이 사용하여 부쳐스 린넨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사진 7-E).

1895년 (I)드레스는 얇은 실크소재의 스커트에 린넨 트윌의 두꺼운 안감을 받쳐 무게감을 더해줘 실루엣을 만들고 있다.

일반복식에 주로 사용된 소재와 웨딩드레스의 소재를 비교해볼 때 웨딩드레스는 일반복식의 유행 소재 중에서도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느낌의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웨딩드레스는 일생 한번뿐인 결혼식에 입혀진 옷으로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화려함이 중시된 것으로 보인다.

4. 웨딩드레스의 디테일과 트리밍

〈사진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의의 여밈 형식은 모두 앞트임으로 1870년 (A)드레스부터 1882년 (F)드레스는 앞 중심에서 좌우 대칭을 이루었다. 20세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양복식은 이제까지의 기본 룰을 벗어난 디자인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본 구성은 남성복은 상의의 왼쪽 자락이 위로 올라오고 여성복은 오른쪽 자락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 기본형이었다. 그러나 1880년 (C)와

(D), 1892년 (H)드레스의 여밈 형식은 왼쪽자락이 위로 올라온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문헌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된 것에 반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사례 수집과 연구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19세기까지의 서양 의복구성에 있어 상의의 여밈 형식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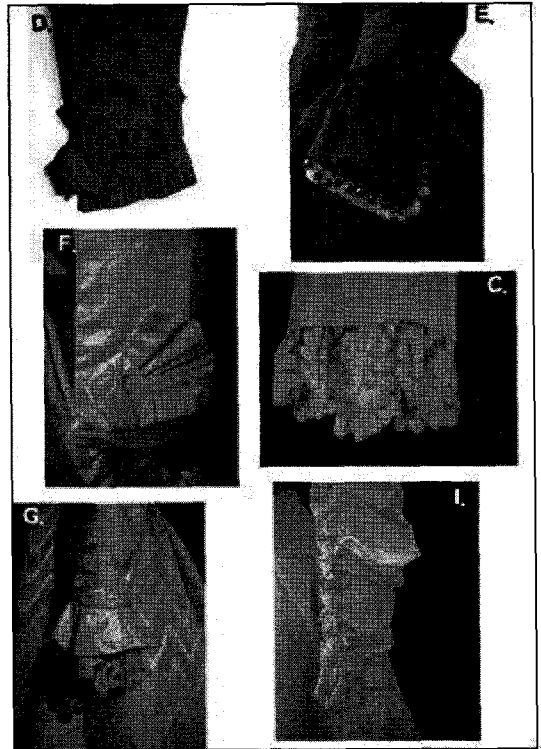
후기 빅토리아기의 1891년 (G), 1892년 (H)드레스는 앞 중심이 아닌 프린세스라인에서 오픈되며 (H)는 속자락이 있어 앞 중심에서 흑으로 채운 뒤 다시 겉자락을 흑으로 채웠다.

1880년 (C)드레스의 칼라와 소매부리를 장식하고 있는 레이스는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소장 드레스에 장식된 레이스와 같은 패턴의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고 이 레이스는 실크 보빈 손 레이스를 본떠 만든 기계 레이스였다(사진 3-C).

상의의 단추를 보면 1870년 (A)드레스는 같은 소재로 짜서 만든 단추이고, 1872년 (B)와 1880년 (D)는 손으로 짠 크로세티드(crocheted) 단추로 일반복식에서도 유행하였다. 1880년 (C)는 진주단추, 1881년 (E)는 비즈로 장식된 스틸단추이다. 1891년 이후의 (G)(H)(I)드레스는 흑으로 여며졌다.

칼라는 1872년(B) 드레스는 핸드 레이스칼라로 탈착이 가능하다. 1880년(C)는 레이스 스탠딩 칼라로 칼라 끝에 와이어를 넣어 세워질 수 있게 하였다. 1880년대의 (D), (E), (F) 드레스는 낮은 밴드 칼라로 (D), (E)는 그 위에 손바느질로 레이스를 덧대었다. (A)와 (G)는 이 시기의 드레스 중에서 비교적 가슴이 파여진 디자인으로 1891년 (G)드레스의 칼라는 레이스로 개더를 잡아 포인트를 주고 숨을 넣어 부피감을 살린 코사지로 강조하였다. 1895년 (I)드레스는 밴드칼라 위에 거즈로 러플을 풍성하게 만들고 뒤쪽에 리본을 달아 로맨틱하게 디자인하였다(사진 3-I).

〈사진 4-A〉을 보면 1870년 (A)드레스는 가로선의 파이핑 장식과 장식끈으로 전체적으로 장식하였으며 앞 허리 중심에서 리본으로 장식하였다. 1872년(B)드레스는 페플럼을 달고 러플로 장식하였으며(사진 4-B) 1880년 (C)는 드레이프와 리본으로 변화를 주



〈사진 5〉 소매 장식

었다(사진 4-C).

디테일과 트리밍은 주로 손바느질로 만들어 부분적으로 탈착이 가능하게 마무리되었다.

1882년 (F)드레스(사진 4-F)는 찬틀리 레이스(chantilly lace)로 스커트를 장식하였고 밑단에는 더스트 러플을 달았다. 1882년 제작된 〈사진 2〉의 자주색 드레스 역시 같은 레이스로 장식되었으며 일반복식에서도 1875년에서 1882년 경에 유행하였다.

〈사진 4-D〉는 스커트 한쪽에만 달린 주머니로서 스커트의 드레이프와 함께 어우러지며 위에 리본으로 장식되었다. 주머니를 다는 것은 중기 빅토리아기에 유행하는데 비실용적인 형태로 장식적으로 변화하여 주머니가 필요하지 않은 웨딩드레스에 까지 유행한 것을 보여준다.

소매장식은 〈사진 5〉에서 보는 것과 같다. 1880년대의 (D)(E)(F)드레스의 소매는 커브를 살려 팔에 꼭 맞게 재단된 2장 소매이다. (D)는 소매부리에 주

름을 잡아 달고 리본장식을 덧붙였으며 소매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59.5cm). (E)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입체적으로 재단되었으며 스커트장식과 동일한 컷 벨벳으로 장식하고 아이보리 컬러의 레이스와 축구공형태의 구슬을 덧붙였다. (F)는 조개모양의 트리밍으로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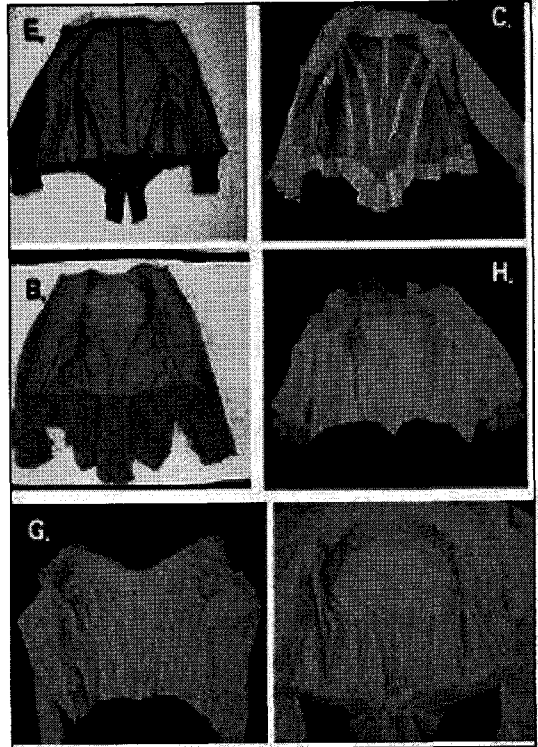
1870년, 1880년대의 소매는 팔모양의 곡선을 살려 꼭 맞게 재단되어 소매부리에 주름이나 레이스로 장식되었으나 1891년(G) 드레스는 소매의 라인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소매부리는 플라운스와 레이스로 장식하였다. 1892년 (H)드레스는 퍼프슬리브로 소매에 볼륨감이 생기며 1895년 (I)드레스에서는 레그 어브 머튼 슬리브로 소매의 볼륨감이 더욱 강조되어 어깨 부위가 과장되었다. (I)는 주름을 많이 잡은 상의와 같이 소매 솔기선을 주름으로 강조하였다. 이렇게 웨딩드레스의 소매디자인도 일반복식에서와 같이 1890년경에는 퍼프슬리브에서 레그 어브 머튼 슬리브 등 어깨를 강조한 디자인이 보여 진다<표 3 참조>.

IV. 미국 빅토리안 웨딩드레스의 제작기법 분석

1851년 싱거에 의해 재봉틀의 보급이 늘어나고 1858년 가정용 미싱이 시판되었으나 의복구성의 전 과정에 재봉틀 사용이 보편화 된 것은 아니었다. 1870년 (A)드레스는 본, 다아트, 프린세스 패널 등을 제외하고 모두 손바느질로 마무리 되었으며 1880년 (D)드레스의 상의는 재봉과 손바느질을 병행하였으나 스커트는 손바느질로만 완성되었다. 그 외에 드레스는 다아트와 솔기 등은 재봉틀로 바느질 하고 부분적인 주름이나 트리밍, 디테일 등은 손바느질로 마무리하였다.

상의의 바느질은<사진 6> 1880년대까지는 겹감과 안감을 바느질하고, 1890년대는 상의의 뒤판만 겹과 안을 같이 바느질하고 앞판은 따로 떼어 바느질했다. 이렇게 겹과 안을 분리한 바느질법은 빅토리안 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 진다.

빅토리안 기의 이상체형(ideal type)은 가는 허리와 평평한 토로소, 볼록한 엉덩이 등으로 이 체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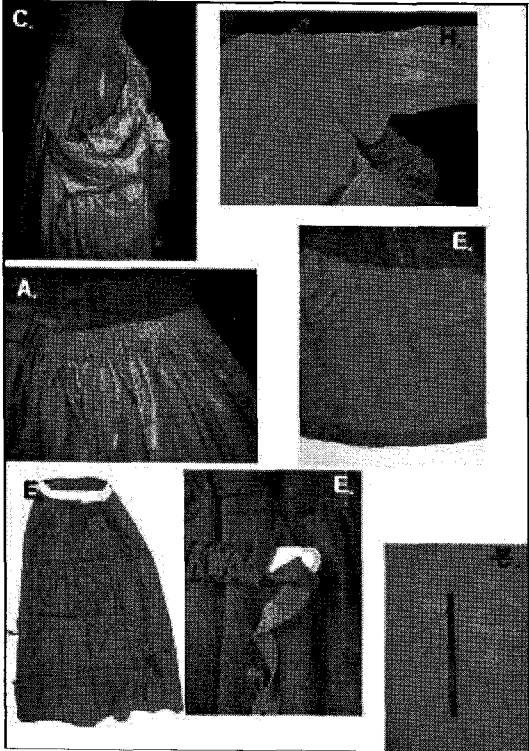


<사진 6> 겹감과 안감의 바느질

만들기 위하여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여 가슴 아래부터 앞부분을 평평하게 하고 엉덩이는 볼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체형을 만들기 위하여 상의에는 라인이나 다아트 등에 고래수염이나 스틸소개의 본(bone)을 대었다<사진 7-본>. 1870년대 드레스의 본(bone) 처리는 솔기 시점 안쪽에 직접 본을 대고 박아 완성하였으며 1880년대에는 70년대와 같은 방법의 처리법과(C와 F드레스) 안감이나 다른 천으로 본을 싸서 솔기 시점 위에 세발뜨기나 감침 등의 손바느질로 완성하는 방법의 두 가지 모두 나타난다. 1890년대의 본 처리는 안감이나 다른 천으로 싸서 솔기 시점 위에 붙이는 방법이 쓰여 졌다<사진 6 참조>.

1880년 (C)드레스와 1882년 (F)드레스는 상의 가슴 부위의 위쪽으로 숨을 놓아 형태를 잡았다.

(C)와 (F),(G)드레스는 상의 안쪽에 좌우 다아트에서 다아트까지 안감으로 폭 4.5~8cm정도, 길이 8~9.5cm정도의 덧단을 만들어 허리에서 흑으로 채



〈사진 7〉 웨딩드레스의 바느질특성

운다. (D)는 트윌테입을 뒤 허리 중심에 붙이고 앞쪽에서 혹으로 채워 허리를 한번 고정하는 형식이다. 이런 허리 안쪽의 고정 띠는 겉옷의 맞음새를 더욱 좋게 하도록 한다.

바닥으로부터 스커트를 보호하기 위해 달았던 발레이유제(balayouse), 더스트 러플(dust ruffle)을 보면 1872년 (B)드레스와 1880년 (D)드레스는 스커트 밑단에 부쳐스 린넨을 대고 더스트 러플을 달았으며, 1880년 (C)드레스와 1882년 (F)드레스는 거친 린넨을 덧대고 플리츠를 덧 붙였다.〈사진 4-F〉 1870년 (A)드레스와 1881년 (E)드레스는 두꺼운 린넨만으로 마무리되었다〈사진 7-E〉.

버슬을 만들기 위한 바느질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스커트의 엉덩이 뒷부분을 풍성하게 부풀리기 위하여 플리츠나 드레이프를 만들고 허리부분에는 누른 관 모양으로 주름을 세워서 만든 커트리지 주름(Cartridge pleats)을 잡았다. 커트리지 주름은 이 시

기 바느질의 특징으로 나타나며 오간 주름(Organ pleats)이라고도 한다(사진 7-A). 〈사진 7-C〉는 버슬의 내부구성을 보여준다. 스커트의 트임은 깊게 트여져 허리에서만 혹크로 여며지고 그 위에 주름 잡은 덧단으로 트임을 감추며 볼록한 버슬을 만든다. 1891년 (G)드레스의 스커트 트임은 9벌의 드레스 중 유일하게 끝단에 스냅이 달려있다. 1881년 (E)드레스는 스커트 안쪽에 버슬의 주름을 고정하기 위해 원단으로 터널을 만들고 막대를 넣었다.

1880년 (C)드레스와 1892년 (H)드레스는 겨드랑이 아래에 패드를 대어 땀으로 젖는 것을 방지하였다. 비교적 두껍게 솜을 두어 만든 (C)는 봉제사가 직접 만들었고, 얇게 솜을 둔 〈사진 6-H〉는 시판된 부자재로 상표가 프린트되어있다.

1895년 (I)드레스는 얇은 실크소재의 스커트에 린넨 트윌의 두꺼운 안감을 받쳐 무게감을 더해주고 스커트 밑단에는 굵은 코드를 덧붙여 축 늘어지지 않는 실루엣을 만든다(표 3 참조).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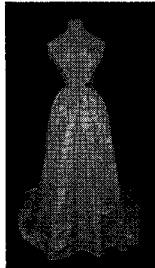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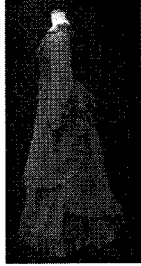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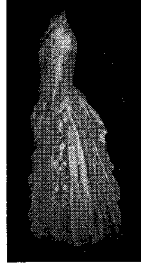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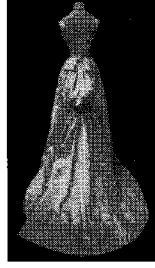


빅토리안 시대 웨딩드레스의 특징을 보면

1. 실루엣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복식의 유행과 웨딩드레스의 유행이 유사하게 나타나 1870년대 1880년대에는 버슬 스타일이 1890년대에는 아우어 클래스 스타일이 유행하였다는 것과 전체적으로 문헌이나 잡지의 일러스트에서 보다는 과장이 적은 형태가 보여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식의 특징을 강조하는 일러스트의 일반적인 성향과 실생활에서의 착장의 실용적인 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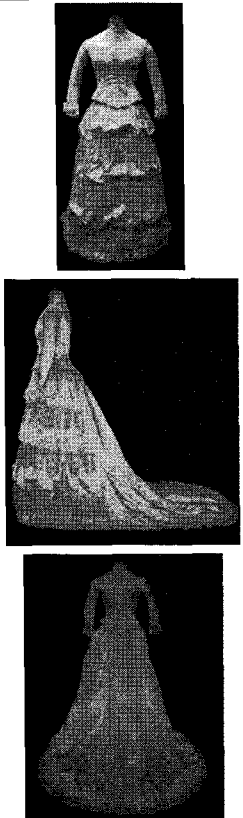
2. 드레스의 마감 부분을 주로 레이스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가로선의 파이프 장식과 장식끈, 페플럼, 러플, 혹은 리본을 이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여 장식하였다. 이는 〈하퍼스 바자:Harper's Bazar〉 잡지를 통해 본 일반복식의 구성양식이나 디테일 등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원피스 스타일이었던 서양복식의 기본구성 양

<표 1> 실물자료 분석

실물자료	A		B		C	
	1870 아이보리컬러 웨딩드레스		1872 브라운컬러 웨딩 드레스		1880 아이보리컬러 웨딩드레스	
제작년도	1870년		1872년		1880년경으로 추정	
착용자	Mary Darcy : Edmund D. Halsey 와 결혼		기증자의 증조할머니		미상	
기증자	Dean Helen Chambers: (phoenixville, CT)		Jane Benham MacDearmid, (Hamden, CT)		미상	
실루엣	버슬실루엣		버슬실루엣		버슬실루엣	
소재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안감
	새틴	바디스; 코튼 스커트; 부처스 린넨	울론 벨갈라인	바디스; 코튼 스커트, 소매: 부처스 린넨	실크 트윌	바디스; 캠브릭
색상	아이보리		브라운		아이보리	토스티드 브라운
디테일	원피스, 슬리브리스, 휘티드 바디스, 분리된 벨트와 리본 장식, 가로선의 파이핑 장식, 뒤쪽 트레인 장식, 오른쪽 안의 주머니, 커트리 지 주름		투피스, 휘티드 바디스, 페플럼, 드롭드 숄더, 코트슬리브, 10개 크로세티드 버튼, 러플장식, 커트리 지 주름		투피스, 12개의 진주버튼, 레이스 스탠딩 칼라, 3/4 길이 소매, 리본 장식, 겨드랑이 아래 숨 패드, 상의 위쪽으로 숨을 넣음, 상의 뒤쪽만 페플럼장식	
사진						
						
						
기타	분리된 소매는 잃어버림		언더 스커트는 다시 제작			

<표 2> 실물자료 분석2

실물자료	D 1880 브라운컬러 웨딩드레스		E 1881 블루컬러 웨딩 드레스		F 1882 샌드컬러 웨딩드레스	
제작년도	1880년		1881년		1882년-1885년 사이로 추정	
착용자	M.E. Weis (Hartford, CT)		Mrs. Carlyle R. Mansfield 1881년 10월 11일 New Haven, CT.에서 결혼		Mrs. Elizabeth Cushing Dr. Lewis Roger와 뉴욕에서 결혼(결혼년도 미상)	
기증자	Mary S. Hubbard (R.F.D.2, Chaplin, Conn.)		Adda E. Mansfield (소유자의 손녀)		Mrs. Mary Wisloh (Storrs, CT./소유자의 손녀)	
실루엣	버슬실루엣		버슬실루엣		버슬 실루엣	
소재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안감
	타페타	부처스 린넨	타페타 커트벨벳	바디스: 코튼 머슬린 스커트: 코튼, 린넨	새틴	코튼
색상	브라운	라이트브라운	블루	바디스: 라이트 브라운 스커트: 그린	샌드	아이보리
디테일	투피스, 큐레스 바디스, 밴드칼라, 테슬 프린지, 12개 크로셋 티드 버튼, 뒤쪽 트레인 장식,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커트리지 주름		투피스, 커트벨벳 패널, 비즈장식, 스틸 버튼, 안쪽 허리 밴드. 언더 스커트 밑단의 주름 장식		투피스, 프린지, 채널라 레이스, 밴드칼라, 18개 버튼, 뒷쪽 긴 트레인 장식, 스커트 주름 망사 심지, 상의 위쪽으로 숨을 넣음, 커트리지 주름	
사진						
기타			스타일은 1884년, 혹은 1885년 제작된 것으로 보이나 기증자가 결혼일이 1881년이라고 설명		기증자는 결혼일이 1855년 경 이었다고 하였으나 스타일로 보아 1882-1885년 경으로 추정	

<표 3> 실물사료 분석3

실물자료	G		H		I	
	1891 민트그린컬러 웨딩드레스		1892 어프 화이트컬러 웨딩드레스		1895 어프하이트컬러 웨딩 드레스	
제작년도	1891년		1892년		1895년	
착용자	미상		기증자의 시어머니; 1892년 11월 16일 Norwood, R.I.에서 결혼		Mary Ladd	
기증자	Ellen Morse		Mrs. Jane Hodges (columbia, CT)		Mrs .Carolyn L. Widmer (Mansfield center, CT.)	
실루엣	아워글래스 실루엣		아워글래스 실루엣		아워글래스 실루엣	
소재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안감
	쟈카드 실크, 실크	머슬린	실크, 레이스	캠브릭	쟈카드 실크, 실크거즈, 실크	바디스; 쟈카드실크 스커트; 리넨트월
색상	민트그린		화이트		화이트	바디스; 아이보리 스커트; 브라운
디테일	투피스, 짧은 재킷, 프릴, 코사지		투피스, 뒤쪽 트레인장식, 퍼프 슬리브, 필장식, 분리된 페티코트, 겨드랑이 밑에 패드		투피스, 거즈러플, 피죤효과, 뒤쪽 트레인장식, 양다리 소매, 소매 주름장식, 뒤쪽커트리지주름	
사진						
기타	레이스와 소매는 부분적으로 파손, 스커트를 블라우스 위로 입음		페티코트는 부분적으로 오염			

식이 빅토리안 중기부터 상. 하의가 분리된 간편한 투피스 형태의 디자인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의 산업의 발달과 함께 보다 다양해진 일상생활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과 실용주의적인 사회경향이 복식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빅토리안 말기의 복식은 이전에 비해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4. 좌우대칭의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던 서양복식에 비대칭구조의 디자인이 소개된 것은 1875년경으로 보여지며 주로 스커트부분의 드레이프의 강조와 리본장식, 주머니 장식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비정형의 미를 추구한 비대칭 스타일이 빅토리안 후기에 많이 보여 지지는 않지만 서양복식의 한 정형이 변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5. 미국 빅토리안 웨딩드레스의 칼라는 일반복식의 유행색과 문화에 따른 색의 상징성이 반영되어 다양한 색상의 웨딩드레스를 보여준 초기와 중기를 거쳐 빅토리안 후기까지도 색깔 있는 웨딩드레스가 입혀졌다. 1840년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식 이후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점차 널리 확산되어 20세기의 상징적인 화이트 칼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과정의 색상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6. 제작기법에 있어 초기 빅토리안기에 재봉틀 보급이 확산되었으나 의복구성의 모든 부분에 쓰여진 것은 아니다. 다아트와 솔기 등은 재봉틀로 바느질하고 디테일과 트리밍은 주로 손바느질로 만들었고 부분적으로 탈착이 가능하게 손바느질로 의복에 부착되었다. 스커트의 허리 달기나 본의 처리, 단추 구멍 등도 주로 손바느질되었다. 상의의 바느질은 1880년대까지는 걸감과 안감을 같이 한 장치처럼 붙여서 바느질 하였고 1890년대에는 상의의 뒤관만 걸과 안을 같이 바느질하고 앞판은 따로 떼어 바느질 했다. 이러한 변화는 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변화로 보여지며 투피스 형태의 디자인 변화와 함께 실용주의적인 사회경향의 영향으로 보인다.

7. 서양 복식 여성복의 경우 오른쪽 자락이 위로 올라오도록 제작되는 여밈의 형식이 빅토리안 기까지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8. 버슬을 만들기 위한 바느질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대와 같은 바느질방법의 정형이 만들어져 가던 과도기적 과정의 다양한 방법의 시도과정으로 이해된다.

9. 얇은 실크소재의 스커트에 린넨 트윌의 두꺼운 안감을 받쳐 무게감을 더해주고 스커트 밑단에는 굵은 코드를 덧붙여 보다 직선적인 실루엣을 만드는 등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스타일이 보여진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빅토리안 시대의 웨딩드레스는 짧은 시기에 많은 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나며 구성양식에 있어서도 중세이후 정형화된 서양복식의 형식이 보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현대와 같은 바느질방법의 정형이 만들어져 가던 과도기적 기간이었다. 화려하고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었으며 장식적인 면이 두드러진 빅토리안 시대의 일반복식의 특징과 일치되고 이전 시대의 복식에 비해 보다 실용성이 강조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본 웨딩드레스연구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점은 빅토리안기 초기의 웨딩드레스 사료를 구하지 못해 실물분석을 못한 점이다. 또한 베일과 장갑 등의 액세서리와 웨딩 슈즈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오랜 세월이 흐르며 부속품을 잃어버린 채 기증된 드레스가 대부분이어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드레스에만 연구가 국한된 점이 부족함으로 남는다.

각각의 웨딩드레스는 사이즈에 맞는 빅토리안기의 드레스폼을 제작하여 착장 사진을 촬영하였어야 함에도 연구 여건 상 새로이 드레스폼을 제작할 수 없었고 몇몇의 드레스는 드레스폼과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 그 실루엣을 살릴 수 없었던 점, 논문의 지면상 바느질에 관한 세부적인 많은 사진을 첨부할 수 없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1) Caroline Goldthorpe (1988). *From Queen to Empress: Victorian Dress 1837-1877*. the Metropolitan Museum

- of Art, NY, p. 7.
- 2) Gini Stephens Frings, 조길수 외 3인 역 (2003). 패션: 개념에서 소비자까지. 시그마 프레스, pp. 6-7.
 - 3) 최병현 외 2인 (2000). 미국문화와 사회. 대우출판사, pp. 33-34.
 - 4)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p. 330-331.
 - 5) Carol Head (2000). *Old Sewing Machines*. Shire Publications Ltd., pp. 3-9.
 - 6) *ibid.*, p. 13.
 - 7) Gini Stephens Frings, 조길수 외 3인 역 (2003). *op. cit.*, p. 10.
 - 8) Douglas A. Russell (1983). *Costume History & Style*. Prentice-Hall, p. 358.
 - 9) 미국 빅토리안 시대의 대표적인 패션잡지 중 하나로 1867년 창간되어 1898년 1차 폐간
 - 10) Stella Blum(ed) (1974). *Victorian Fashions & Costumes from Harper's Bazar 1867-1898*. Dover pub.
 - 11) *ibid.*, p. 3.
 - 12) *ibid.*, p. 77.
 - 13) *ibid.*, p. 10.
 - 14) Lucy Johnston (2005). *19th C. Fashion in Detail*, V&A Publications, pp. 62-63.
 - 15) Margot Hamilton, Peter A Bucknell (1983). *The Evolution of Fashion: Pattern and Cut from 1066-1930*, Drama Book Publishers.
 - 16) Stella Blum(ed) (1974). *op. cit.*
 - 17) Caroline Goldthorpe (1988). *op. cit.*, p. 62.
 - 18) Kristine Harris (2002). *Victorian Fashion in America : Vintage Photographs*. Dover, p. 18.
 - 19) *Form and Fashion* (1992). McCord museum of Canadian History, p. 39.
 - 20) 이윤정 (2003). 웨딩드레스 색상의 변천과정 연구. 복식문화연구, 11(5), pp. 668-669.
 - 21) *Form and Fashion* (1992). *op. cit.*, p. 39.
 - 22) 이윤정 (2003). 앞의 책, pp. 668-669.
 - 23) Douglas A. Russell (1983). *op. cit.*, p. 363.
 - 24) Susan W. Greene (2002). *Textiles for early Victorian Clothing: 1850-1880*. Gateway Printing, p. 48.
- * John Peacock (2003). *Costume 1066-1990s*. Thames & Hudson
- * Janet Arnold (1977). *Pattern of Fashion2 : English-women's dresses & their construction c. 1860-1940*. Drama Book Pub.